음악과 기사

주체91(2002)년 5월 3일

천출명장을 모신 자랑 노래에 담아

노래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부르자≫

수령복, 장군복이 넘치는 내조국의 맑은 하늘가에 노래가 울립니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시라고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부르자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 병사들이 뜻깊은 선군절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이 맑은 목청을 합쳐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하는 이 가요에는 용암처럼 뜨겁고 햇빛처럼 따사로운 인정미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들과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찾아가시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한껏 어려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정녕 노래 속에 새겨갈수록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은 만가지 지략을 펼치시어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이끌어오신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병사들의 친어버이이십니다.

노래에 굽이치고 있는 것처럼 천하제일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멸의 선군정치로 우리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광을 만대에 떨쳐주시는 전무후무한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늘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을 안겨주시려 선군혁명영도의 멀고 험한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어떤 날에는 차안에서 야전복차람에 쪽잠을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 한고뿌로 끼니를 대신하시기도 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에게 자신께서도 평생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와 단독으로 맞서 대결전을 치루어야 했던 처절한 수호전의 그날에도 아늑한 집무실이 아니라 혁명의 제1선 참호, 바람 세찬 최전연의 고지들에 계신 우리의 장군님이십니다.

총과 총이 마주 쏘고 불과 불이 대치한 최전연. 살벌한 초긴장이 감도는 351고지와 적의 총구가 수십미터앞에서 노리는 판문점의 최전방 초소에 거연히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의 근엄한 기상에서 우리는 인민의 운명과 인류의 평화를 총대로 지켜가시는 천출명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총대에 역사의 의지,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과 병사들을 찾아 걸으신 길, 우리 이 짧은 노래 속에 어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불면불휴의 선군혁명영도에 끝없이 매혹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이렇게 격찬하고 있습니다.

≪그이께서 펼쳐가시는 혁명적 영도는 선군정치이다.≫

≪그이의 선군정치는 혁명의 미래를 담보하는 원대한 정치이다.≫

≪그이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세계 인민들이 한결같이 탄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나라를 단숨에 압살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으로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 인민들로부터 사회주의위업의 견결한 수호자로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으시고 있는 것은 그이께서 인류의 자주위업, 세계평화위업을 총대로 지켜가시는 위인중에 위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그이의 손길아래서 무적의 기상과 위훈의 나래만을 키워온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은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에 담아 이렇듯 긍지높이 터치는 것이며 인류의 미래이시고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철석의 의지에 넘쳐 있는 것입니다.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부르자≫, 참으로 여기에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어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헤쳐넘어 강성부흥의 한길로 억세게 사념쳐가는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의 한없는 긍지와 자랑이 맥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열백번 뒤집힌데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목숨바쳐 옹위해갈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신념의 맹세로 노래는 더욱 세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 높이 부르며 우리는 사회주의 내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갈 것입니다.

(끝)

음악과 기사

• 우리는 가리 승리의 한길
• 천출명장을 모신 자랑 노래에 담아
• 더 높이 추켜들리 우리의 총대를
•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 깃든 불멸의 영도, 위대한 업적

우리는 가리 승리의 한길

노래 ≪승리의 길≫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주체의 내조국에 노래가 울립니다. 혁명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세상 끝까지 메아리쳐 갑니다.

주체의 태양이 찬연히 앞길을 밝히는 사회주의조선에서 사는 존엄높은 우리 인민, 나라의 주인으로써 혁명의 주인으로써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찬란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신심에 넘친 모습을 그대로 담았는가. 세계의 하늘가에 힘있게 울려퍼지는 가요, ≪승리의 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따라 기어이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의지가 노래의 구절구절마다에 뜨겁게 맥박쳐 흐릅니다.

노래의 구절구절에 우리 심장에 박동을 맞추느라면 바람앞에 촛불과도 같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건져주시려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혈전만리 백두밀림의 험준한 산발들이 눈앞에 어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꽃피워주시려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가열한 조국해방전쟁의 포연탄우 전선길, 끊임없이 걷고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이 안겨옵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언제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면서도 언제나 만면에 햇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우리 인민들을 따뜻이 품어주신 어버이수령님.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 혁명의 전도는 참으로 양양하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수령님과 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햇빛같은 미소에 주체혁명위업의 그날의 환희가 비껴있고 승리만을 떨쳐가시는 위대한 명장의 기상이 어려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오랜 정치경력, 비상히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가이시며 끝없는 열정과 무비의 담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시는 희세의 정력가, 위대한 영장이신 절세의 위인 **김정일**동지.

어떤 고난도 웃음으로 이겨내시고 천만대적의 준동도 웃음으로 흩날려버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생각할수록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된 강력한 주체를 이루게 하고 주체의 위력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위대한 역사적 변혁을 이룩할 수 있게 한 것은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공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그의 충실성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영도자로써의 그의 비범한 품격과 능력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신 교시가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자강도를 찾으신 그 나날에 지으신 장군님의 미소는 지금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한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 일군들과 함께 기업소 구내 길을 걸으시다가 건물벽에 걸려있는 구호를 가리키시며 ≪저 구호를 보라.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얼마나 좋은 구호인가. 저 구호는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신념의 구호≫라고 말씀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신 위대한 장군님.

정녕 우리 장군님의 웃음은 천만대적의 오금도 꺾어버리시는 위대한 명장의 웃음이며 인민들에게는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낙관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어버이의 웃음입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이 일찍이 알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오늘과 같은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는 고난의 천리를 걸어 행복의 만리를 안아온 승리자의 긍지가 꽉 차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계시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승리! 이것은 혁명의 진두에 백두의 영장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온 나라 인민이 혼연일체로 뭉쳐 위대한 혁명의 길을 줄달음쳐 온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이룩할 수 있는 승리이며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 세기를 맞아 더욱 약동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그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해도 절대로 주춤하거나 물러섬이 없이 비장한 결사의 각오, 혁명적 기질로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따라 끝까지 완성해나갈 하나의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머나먼 길에 흘린 피가 붉은기에 스며있고 승리의 천만리길위에 영광의 자욱이 새겨져 있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주체혁명을 기어이 경애하는 장군님따라서 영원히 승리로 떨쳐갈 것입니다.

(끝)

더 높이 추켜들리 우리의 총대를

노래 ≪우리의 총창위에 평화가 있다≫

노래가 울립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쳐 내달리는 내 나라, 내조국의 하늘가에 천만군민의 마음을 담은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이 땅에 침략의 무리 덤벼든다면 경애하는 장군님 안겨주신 백두산총대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인민군 장병들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담은 노래. 우리를 건드리는 자 지구위에 그 어디에 있다해도 단매에 쓸어눕힐 무적필승의 뱃심이 구절구절 넘쳐나는 이 노래.

돌이켜보면 볼수록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인민군 병사들과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넘쳐나는 절대불변의 이 신념과 의지.

백두의 천만산악과도 같이 억년 드놀지 않을 이 뱃심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이겠습니까.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우리의 총에는 항일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피와 넋이 스며있으며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 있다, 총이 없으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 나라와 민족, 인간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낼 수 없다, 자신께서는 언제나 총과 숨결을 같이하고 있다고,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고 격조높이 말씀하시던 아, 그날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숭엄한 모습이.

총대위에 사회주의도 있고 평화도 있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다.

바로 이러한 총관, 이러한 총대철학을 지니시고 이 땅에 선군정치의 자랑찬 새 역사를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주체84 (1995)년 1월 1일.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 피눈물속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인민에게 뜻깊은 서한을 보내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지도.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위대한 선군정치의 개시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사회주의조선의 비장한 의지, 사생결단의 각오를 과시한 대사변이였으니 그때로부터 우리 장군님께서 병사들을 찾아 걷고 또 걸으신 그 멀고 험한 길은 과연 몇천몇만리이며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지새우신 밤은 또 그 얼마였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전선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를때면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그 멀고 험한 전선길이 눈물겹게 어려오고 그의 야전생활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 다녔는가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 헤쳐가신 파도 사나운 초도에로의 뱃길이며 몸소 야전차를 밀며 오르신 험준한 산악 오송산과 산새들도 쉬어넘는 철령, 최전연의 판문점과 351고지, 대덕산.

쪽잠과 줴기밥, 장군님의 야전. 우리 인민이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야전생활과 관련한 눈물겨운 일화들은 또 그 얼마입니까.

멀고 험한 전설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병사들을 찾고 또 찾으시어서는 그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고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혁명적 신념과 의지, 그 어떤 뇌성벽력에도 끄덕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몇해전 어느날에도 한몸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판문점에까지 나가신 우리의 장군님, 병사들에게 그 얼마나 뜨겁게 말씀하셨습니까.

≪자주적 근위병이 되겠는가, 아니면 제국주의 노예가 되겠는가. 오늘 문제는 이렇게 선다. 우리는 이 땅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적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한시도 손에서 혁명의 무기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

결사의 각오를 안고 어버이수령님 물려주신 신성한 이 땅을 끝까지 지키라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장군님.

이 땅에 선군정치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거룩한 자욱과 더불어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핵심역량인 우리의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조선혁명의 제일기둥, 조국군으로 강화발전되고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나니, 그 나날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할 맹세로 심장들을 펄펄 끓이며 우리를 먹어보겠다고 피를 물고 달려드는 적들과는 끝까지 사생결단을 하여 기어이 결판을 보고야 말겠다는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가다듬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의 가슴속에는 과연 그 무엇이 가득차 넘쳤습니까.

바로 그것은 위대한 백두산 장군이신 경애하는 장군님만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숭고한 사상감정, 우리 장군님을 따르는 그 길이 천만리 억만리라도 오직 그길만이 최후승리를 이룩하는 길이며 우리가 살길이라는 억척같은 신념이였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뜻이 어린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우리의 자주권과 평화, 정의를 끝까지 수호할 철의 신념과 의지,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기어이 승리하고 조국통일을 반드시 안아올 사생결단의 각오가 역력히 맥박치는 노래, ≪우리의 총창위에 평화가 있다≫.

우리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며 결코 그 어떤 허세가 아닙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따라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1990년대의 사회주의 붉은기수호전이 이를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거니.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은 앞으로도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수령님 물려주시고 장군님 더높이 추켜드신 백두산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도 백두산총대와 더불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의 동지, 열혈의 동지로 그이의 두리에 억척같이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끝)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 깃든 불멸의 영도, 위대한 업적

자주적 인간의 참된 생활이 있고 그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음악이 집대성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긍지이며 자랑인 5대 혁명가극.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극 ≪피바다≫로부터 가극혁명의 불길을 이 땅에 지펴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영도는 5대혁명가극의 하나인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투철한 혁명적 신념을 깊은 사상정서적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억세게 싸워나가는 주인공 최병훈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가의 신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받쳐져야하는가를 뜨겁게 보여주는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는 문학예술의 탁월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난 또하나의 시대적 걸작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혁명가극 ≪피바다≫에 이어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창조한 것은 우리 나라 가극혁명에서 또하나의 혁명이라고 높은 치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리게 된 창작가예술인들은 혁명가극 창조의 나날 몸소 창작가가 되시어 작품의 종자와 구성, 이야기줄거리는 물론 자그마한 생활세부에 이르기까지 형상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지도를 주시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또하나의 기념비적 명작을 완성하도록 하시어 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눈시울을 적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72년 정초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극 ≪피바다≫와 ≪당의 참된 딸≫창작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가극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려는 원대한 구상속에 연이어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업을 피바다가극단 제2조에서 맡아 형상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모로보나 사상예술적 준비정도가 어린 그들로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당의 의도대로 훌륭하게 창조해낼 수 있겠는가하고 우려하는 일군들을 장군님께서는 피바다가극단 제2조에서 혁명가극 ≪피바다≫를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식의 혁명가극에 정통한 창작가예술인들로 키우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혁명가극인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상적으로보나 예술적 기량으로 보나 너무도 어린 자기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사랑이 고마와 창작가예술인들은 낮에 밤을 이어 불꽃처럼 창작형상하여 한달도 못되는 짧은 사이에 혁명가극 ≪피바다≫를 손색없이 공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해 2월중순 대극장에 나오시어 그들이 무대에 올린 혁명가극 ≪피바다≫를 보시고 2조성원들이 열정도 높고 창조태도도 좋다고 높이 평가하시고 당에 대한 이런 충성심만 있으면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도 능히 무대에 올릴 수 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혁명가극 ≪피바다≫창조과정을 통하여 우리식의 주체예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그들은 용기백배하여 또다시 새로운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손색없이 창조하여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일념을 안고 새로운 전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지 못한 그들은 작품의 종자부터 똑바로 규정짓지 못한데로부터 구성체계와 줄거리를 에이게 형상하지 못하여 첫 시연회에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크나큰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너그럽게 바라보시며 우리 시대에 와서 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혁명가극으로 새로 개작하는 것만큼 내용과 형식은 물론 형상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셨습니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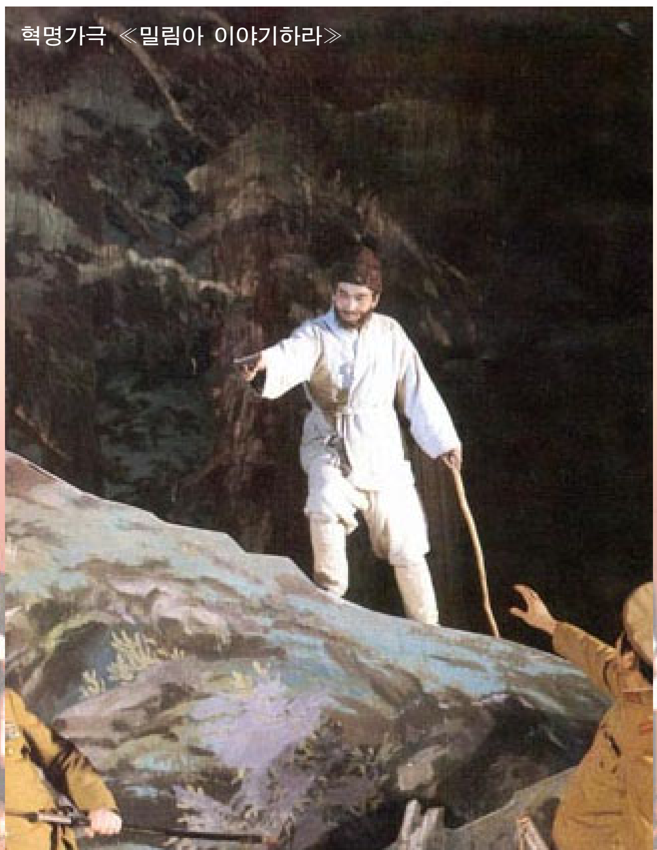
그러자면 작품의 절정인 이별장면에서 주인공이 잠자는 딸을 깨워야한다고, 그리고 그에게 지난날의 모든 사연을 다 이야기한다음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선물시계를 딸에게 넘겨주는데 이야기를 집중시켜야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설정장면이 훌륭히 해결됨으로써 수령님따라 싸우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작품의 종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극의 기본장면뿐 아니라 무용과 미술, 조명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인공으로 말하면 몸은 비록 사령부를 떠나 멀리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사령관동지를 우러르며 그품에 안길 영광의 시각을 투쟁으로 앞당겨 가는 혁명전사인 것만큼 환상장면을 잘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별≫노래의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머리위에서 장군별이 빛나는 밤하늘속에 무수한 별점들의 춤동작을 무대에 펼쳐놓고 아득한 밀림의 바다위에 백두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냄으로써 수령님이 계시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있고 누리에 빛나는 조선이 있다는 심원한 사상을 빛나는 화폭으로 펼쳐보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창작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밀림아 이야기하라≫는 **김정일**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서 오늘과 같은 시대의 명작으로, 혁명가극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오늘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술의 나라, 가극의 왕국입니다. 20세기 70년대에 이 땅에 씨를 뿌리고 화창한 꽃을 피워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펼쳐놓으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은 세월이 갈수록 더 빛나는 열매로 이 땅을 풍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창조와 열정의 산물인 5대 혁명가극의 탄생으로부터 수많은 가극이 연이어 나와 세상사람들을 경탄케했으니 문학예술의 탁월한 영재이시며 주체예술의 향도성이신 **김정일**동지를 모신 우리 예술인들처럼 복받은 예술인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의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혁명의 길은 더욱더 간고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피눈물의 언덕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으시고 시작하신 선군의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의 주인공이 부르는 신념의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주체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
앉아서 편안하게 혁명을 하랴
아버지도 딸자식도 집을 떠나네

(끝)